

# 한국가족에서의 성불평등적 문제들과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xist Problems in Korean Family  
and Feminist Family Therapy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崔妍實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Youn Shil Choi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기법과<br>여권론적 가족치료의 훈련 |
| II. 한국가족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적<br>요소와 문제 | VI. 한국에서의 여권론적 가족치료에<br>대한 관심      |
| III.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심리치료           | VII. 결 론                           |
| IV. 가족치료에 대한 여권론적 비판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is paper reviews the feminist approach in family therapy field as a proper intervention for the sexist problems in Korean family. First, this paper identifies the sexist problems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family ideology, structure and value conflicts due to the change of society in Korean family and analyses those problems referred to the actual situ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for the emergence of the feminist family therapy. The feminist approach in family therapy has been emerged since the woman's psychology and feminist therapy appeared in psychology by the influence of women's movement in late 1960s. Third, the critiques to the existed family therapy from the viewpoint of feminist family therapy are raised. This approach, which is challenging the existed family therapy and criticizing the main theoretical models, especially emphasizes gender as a primary factor in the approaches of family problems and includes all the aspects of feminism, an awareness of sexism and attempts to counteract the ways in which family therapy may reinforce women's

subordinate position. Fourth, the techniques of feminist family therapy and the training methods for feminist family therapists are explained. This approach attempts to develop the clinical skills, teaching tools and techniques to incorporate the feminist perspective into family therapy practices and proposes the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s.

Finally, this paper reviews interests in the feminist family therapy in Korea and has good prospects of increase of it.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의 문제·갈등·표출이나 가족의 해체 등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추세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인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가족안에는 유교의 영향과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해서 집단 중심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나 남성지배 사상으로 인한 남녀불평등의식과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해 왔다(이광규, 1985; 최홍기, 1991). 한편, 사회변화와 근대사상의 유입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해 가는 여성들의 권리의식 추구하고 평등에 대한 욕구 등은 기존의 가족의식이나 남성중심적 사고 등과 마찰을 빚음으로써 가족갈등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불평등적인 문제들은 가족 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치료 상황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성불평등적인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여권론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여성심리학과 여성심리치료의 발전에 힘입어 가족치료안에서 여권론적 관점으로 접근해가는 치료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Avis, 1986).

1960년대 이후 여권론<sup>1)</sup>은 실천적 운동의 성격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하나의 학문적 접근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서 여러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등장한 여성심리학과 여

권론적 심리치료분야는 여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심리학이나 심리치료 분야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미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성(性)에 따른 사회에서의 권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회에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고정적인 성격 특성의 작용과 함께, 여성의 심리를 부정적으로 파악했던 Freud 정신분석학<sup>2)</sup>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심리치료안에서는 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지배해 왔다. 여성심리학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관에 도전하여 여성중심의 시각을 갖고 문제 해결과정에서 여성권익을 보호하는 '여권론적 심리치료(feminist psychotherapy)'로 결실을 맺었다(김영희, 1987; Enns, 1993).

한편, 가족치료는 성에 대한 중립적 지향을 표방했고, 개인을 타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정신병리를 한정시키는 전통적 진단 명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초기의 여권론적 심리치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가족치료모델이 실제로는 성(gender)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인식된 이후 그들에 의해 비판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동안에는 특히 가족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두 주요이론인 정신분석학과 체계이론<sup>3)</sup>이 가족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가가 탐구되었

1)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용어는 점차 번역되지 않고 그대로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여권론'으로 지칭한다. 이 외에 '여성해방론', '여성주의'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2) Freud의 정신분석학은 현대에 이르러, Lacan, Kristeva, Cixous 등의 신프랑스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부정적 여성심리의 증거로 사용되던 것과는 달리 반대 입장에서 여권론적으로 변용되기도 하였다(Donovan, 1985; Enns, 1993).

3) 정신분석학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관점은 가족치료내에서 그 문제점과 한계가 비판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여권론적 가족치료에서는 이를 오히려 이론적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김성천, 1992).

다. 그리하여 여권론과 가족치료 모델 간의 비양립성을 지적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면서(Enns, 1993), 성(gender)이라는 변수를 가족조직의 원리로서 간주하고 가족치료안에서 비중있게 고려하려는 하나의 임상적 제안인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등장하게 되었다.

가족치료 안에서의 여권론적 접근은 가족치료안에 스며있는 성불평등적이고 여성의 권리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치료접근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치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가족치료가 실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고 또 여권론에 대한 오해나 거부가 존재하기도 하므로(김성천, 1992),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곧바로 쉽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성불평등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여권론적 가족치료를 이론적으로 탐색해보려는 임상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족연구에 여권론적 관점을 결합시켜 보려는 최근의 노력들(Burr, Day & Bahr, 1993; Ferree, 1990)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문헌고찰을 중심으로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가족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적 요소와 문제들이 어떤 양상인지 알아보고,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심리학의 등장과 배경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여권론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가족치료에 대한 비판을 추적해 본 후,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기법, 여권론적 가족치료자의 훈련 고찰을 통해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면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적용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 II. 한국가족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적 요소와 문제

한국의 가족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의 여러 특수성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내담자들이 상담상황에 가지고 오는 가족문제들에도 이러한 성격들이 반영되기 쉽다. 가족문제의 보다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치료자들은 한국사회의 이 다양한 특수성들이 가족변화와 가족문제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 안에서 성불평등적 요소들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해왔는가와 또 이러한 양상들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상담장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 1. 전통가족의 이데올로기와 구조에서의 성불평등적 요소들

전통적으로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한국가족은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과 가족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족주의를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막강한 가부장주의는 가부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가부장권을 보장하였다(이광규, 1985).

유교적 가족관계에서는 위계관계를 중시하는데, 이차등적 상하관계의 배열기준은 남녀의 성과 상하의 세대이다. 오륜을 통하여 잘 나타난 이러한 사상 중 남녀유별은 양과 음의 원리로서 모든 규범의 출발점인 동시에 기초로 이해된다. 남녀유별은 지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관계와 역할관계에도 적용되어, 부부간의 물리적 분리는 양성의 사회적 역할수행에도 이어져 양성의 역할은 엄격한 구분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남녀유별의 이념은 가계와 지위계승, 재산의 소유·상속 등 모든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자를 배제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면서 결국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도구적 존재로 머물렀으며, 남성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역경을 인내하는 것이 부덕으로 강조되었다. 유교에서의 남존여비 사상이나 여성에게 요구했던 삼종(三從)과 사덕(四德)은 모두 그러한 부부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된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최흥기, 1991).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장 일차적인 관계는 부자관계, 그 중에서도 부와 적장자(嫡長子)관계가 가장 중요했다(이광규, 1985). 남녀유별, 차등주의와 서열의 원칙에 따라 가계와 지위의 계승에서 여자는 배제되고 남자에게만 계승되며, 서자보다 장자가, 중자(衆子)보다 장자가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상속제도는 남아에 대한 선호와 집착을 낳게 되었으며, 특히 시집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를 점하다가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비로소 가족내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여성들은 아들에 대한 가치선호가 내면화되고 집착으로 이어져, 아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에 아들을 사이에 두고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배경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은 한국가족문제에서 가장 고질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부관계는 한국가족내에서 가장 취약한 관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이광규, 1985).

현재 우리나라 가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양상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아내구타나 성폭력의 문제 등은 성불평등적 요소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바로 이같은 가부장주의적 사고와 남성지배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된다.

## 2. 한국가족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더불어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가족의 경우도 형태적·내용적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구조, 가족주기, 기능, 가치상의 변화를 보여왔다(이기숙, 1993).

이러한 변화에 따른 영향 가운데 가족 자체의 변화에서 존재하는 구조와 의식간의 불일치는 구조적 측면으로는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데, 가치관의 측면으로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가족변화의 특징을 사회심리적 혹은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의 혼재현상을 볼 수 있다(김홍주, 1993). 즉, 남성우월주의, 남아선호

사상, 성 격리문화, 개인보다 집안을 더욱 중요시하는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합리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과 부딪쳐 가족원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가족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육기회와 취업기회가 여성에게 보다 개방적으로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되자 현실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한 적응을 위해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부관계에서의 역할분담이나 권력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가족내에서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이나 가부장적 사고 등으로 인한 '신전통주의적 역할구분의식' 하에서 취업여성들은 자신의 직장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과중한 노동부담을 안고 있으며(정민자·옥선화, 1993), 남편들은 가정을 안식처로 생각하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만이 고조되는 등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의 발생 소지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3. 상담상황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적인 가족문제들

상담상황에서 다루어지는 성불평등적인 문제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의식,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재나 갈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많이 보고하고 있는 성불평등적인 가족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혼외관계이다. 이혼의 사유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외도 등에서 남편들의 혼외관계는 부인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이은주, 1993), 가정상담기관의 통계에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김성천, 1992; 여성의 진화, 1991). 이러한 현상은 한국가족의 남성중심적 사상으로 인한 다처 및 축첩의 전통과 남성에게 보다 관대한 이중기준의 적용에 따른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특히 아내구타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가족문제 중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아내학대는 피해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의 성격을 갖게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아내구타(조연규·김광일, 1990)는 상담에 의뢰된 비율로도 남편의 외도 다음으로 높다(여성의 전화, 1991).

세째, 부인의 취업문제를 둘러싼 가사분담 등의 성역할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은 가정이라 여기는 의식과 취업을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신전통주의적 역할의식'은 여성 스스로에게 심리적·육체적 부담감을 가져오며, 상담상황에서도 이와같이 부인의 사회활동 욕구에 대해 남편이 반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주 다루어진다(김성천, 1992).

네째, 시댁과의 갈등이다. 구체적으로 고부갈등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구조적 측면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근대적 사고방식을 지닌 며느리 사이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가족문제의 상담기관에도 자주 의뢰되는 편이다(여성의 전화, 1991). 더우기 오늘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수동적으로 시집살이를 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불리한 입장으로 그 양상이 바뀌어 과거보다 고부갈등이 더 첨예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옥선화·정민자, 1993).

다섯째, 성폭력이나 근친상간 등의 문제이다.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물리력에 의한 성적 공격과 회롱의 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대표적인 성불평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근친상간은 이미 많은 상담사례에서 중요한 가족문제로 제기된 성불평등적인 가족문제의 대표적 예로서, 깊은 상처와 성(性)에 대한 강한 혐오감, 가족에 대한 배신감, 소외감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거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등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김성천, 1992).

### Ⅲ.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심리치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성불평등적인 가족문제는, 여권론적 배경을 깔고 심리학 분야에서 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심리치료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가족치료안에서 여성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하려는 시도인 여권론적 가족치료접근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가족치료에서의 여권론적 접근이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여권운동의 발생과 여성심리학의 등장

1960년대 말 인권운동의 확산 이후 그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사이에서 여성의 처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게 되어 발전하게 된 현대여성운동<sup>4)</sup>은 사회와 가정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위치를 확보하려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운동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열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여성이 처한 위치를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권론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준거틀로서도 부상하여 기존의 학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한국여성연구소, 1989).

여권론적 입장이 기존의 학문 세계에 던진 도전들 중에서 주목할 바는 남성우월 혹은 남성중심적 세계관과 사고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아울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여성과 관련된 편견, 성차별이나 문제들을 '가시화(可視化)'시키는 것이었다(Andersen, 1983). 여권론적 접근은 특히 사회현상을 파악할 때, 성(性)이라는 변수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고려될 필요

4) '근대 여성운동'이라고도 불리우는 여권운동의 첫번째 물결은 이미 19세기에 제기된 바 있는데, 이 글에서 '현대여성운동'이라고 부르는 여권운동의 두번째 물결은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여권운동을 지칭한다.

성 등을 강조하였고, 남성들이 인간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맞서서 여성들의 고유한 경험세계가 존중될 의의를 역설했다.

이러한 입장이 심리학 분야에서 반영된 여성심리학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여성문제 의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여성운동의 가장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층의 하나였던 '의식고양(Consciousness-Raising:CR)집단'의 활동과 더불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상담심리학이나 심리치료분야에서 확인시킴으로써, 여권론적 심리치료가 탄생하는 기틀을 닦았다(Enns, 1993).

## 2.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심리치료의 등장

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가 여성을 다루어 온 전통적인 시각에 비판을 제기했던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심리치료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연구자들은 어떻게 실제 치료가 치료자-내담자 관계를 위계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장시켰는지에 눈길을 던졌으며, 심리학이론, 치료적 목표, 실제 진단이 심리적 건강을 남성중심으로 고정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성편견이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장려했는가, 또 내담자들을 전통적으로 고정관념화된 성역할에 적응하도록 격려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같은 연구노력들은 1974년 미국심리학회 내에서 여성심리학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 후, 다음 해인 1975년 심리치료 내에서의 성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화에 대한 연구 과제(Task Force)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치료의 첫 10년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에는 주로 생물학적 성(sex)/사회적 성(gender)에 관한 편견에 대한 연구와, 여권론적 치료개입으로서의 양성성 치료와 주장성 훈련에 대한 연구로 초점이 모아졌다(Enns, 1993).

그 다음 10여년 동안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치료 안에서의 움직임은 심리평가와 진단 비판, 여권론적 인성이론과 여성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 등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여권론적 치료자들은 진단검사 사용을 피하는 대신 행동분석, 특히 성역할분석을 실시한다. 이 분석은 심리적 곤경에 미치는 사회적 성(gender)의 영향을 고려하는 대안적 평가방법으로 1980년대에 여권론적 치료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80년대 동안 여권론적 치료자들은 여권론의 틀 내에서 기존의 진단 방법을 검토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검사와 평가에서의 편견제거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초의 전통적 진단법주를 재개념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Enns, 1993). 여권론적 인성이론과 여성연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권론적 인성이론은 1970년대 후반 주로 Freud의 개념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대표적으로 Gilligan(1982)이 분리, 자율성, 개인주의를 긴장한 인성으로 보는 주류이론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에 대한 관점을 제기하면서 보다 본격화되었다. Gilligan은 '관계 내에서의 자아(self-in-relationship)'라는 모델을 통해, 여성 발달과정에서 공감, 관계와 상호강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에서는 여권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다양한 철학적 입장들이 여권론적 심리치료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 3. 여권론적 심리치료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

여권론이라고 하면 하나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상 여권론 안에는 여성의 억압과 성차별의 기원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하는 다양한 철학적 접근들이 존재한다(Andersen, 1983; Donovan, 1985). 여권론적 심리치료는 심리학이론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여권론자들의 다양한 정치적·사회적·철학적 관점들에 의해 영향 받고 있다. 치료에 있어 치료자의 구체적 지식, 경험, 태도, 개입이 상당히 중요하데, 어떤 치료자가 여권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권론적 심리치료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관

점들은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sup>5)</sup> 분류의 필요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심리치료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관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로, 자유주의 여권론자들(liberal feminists)의 영향을 받은 비성차별주의적 치료가들(nonsexist therapists)은, 성불평등의 문제를 여성에 대한 법적·경제적·문화적 제약 뿐만 아니라 사회화과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기회를 보장받고 그들 재능이 허락하는 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적 효율성, 독립, 자율성, 여권론적 사회전망을 목표로 한다. 미국심리학회와 여성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위한 17개 원칙 등은 대개 자유주의 여권론자들의 입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이 입장에 기반한 치료적 해결책은 주로 경직된 성역할 규제에서 자유롭게 하고, 개인들의 기능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여권론적 치료가들(cultural feminist therapists)은 타자와의 관계속의 자아모델(the self-in-relation to others) 지지자들, 여권론적 대상관계(feminist object relations) 이론가들, 여권론적 융학파모델(feminist Jungian models) 지지자들의 접근에 기반한 문화적 여권론자들에게 동의한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여성의 전통적 힘에 특별히 주목하고 여성의 억압이, 여성의 정서적·직관적·이타적·협동적·관계적 가치와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데서 온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성불평등의 해결은 여성의 힘을 재평가하고 문화의 여성화를 이루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치료적 관계는 자기표현과 친밀성간의 균형이 탐색되고 긍정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설정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사건이 어떻게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덜 강조하지만, 여성으로 하여금 깊이 돌보는 인간관계 내에서 관계적 자아를 재평가하도록 돕도록 한다. 그들은 이 돌보고 배려하는 특성이 보다 큰 문화에 침투할 때 개인적인 것

이 정치적인 것이 된다고 믿는다.

셋째, 급진적 여권론적 치료가들(radical feminist therapists)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가부장제에 놓여 있고 전통적 제도들이 가부장제에 의해 너무 침투당해서 제도의 극적인 전환이 성불평등의 근절에 필요하다고 보는 급진적 여권론자들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환경을 창조하고, 많은 주류 접근법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미묘한 가부장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 여권론적 정신, 접촉/신체치료, 시,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비전통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사회주의 여권론적 치료가들(socialist feminist therapists)은 계급, 인종, 성과 같은 지위가 여성 억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급진적 여권론적 치료와 많은 가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계급, 성, 민족 등의 상호작용적 효과를 더 강조한다. 평등을 막는 구조적 장벽의 제거와 각종 차별을 근절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문제를 사회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려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형태의 억압을 제거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여타의 경제적·교육적·정치적·사회적 체계들과 어울릴 때에만 개별 치료가 효율적이라고 본다. 여성의 삶안에서 성차별주의를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분석을 사용하는 급진적·사회주의적 여권론은 초기 여권론적 심리치료에 많은 기여를 했다.

#### IV. 가족치료에 대한 여권론적 비판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과정들을 토대로 하여 발전한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기존의 가족치료와 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여권론, 급진주의 여권론, 마르크스주의 여권론, 사회주의 여권론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Andersen, 1983), 여기에 Donovan(1985)은 문화주의 관점을, 김성천(1992)은 복지주의적 관점을 첨가하고 있다.

### 1. 기존의 가족치료에 대한 여권론적 비판

여권론적 심리치료의 여파를 타고 가족치료 분야에도 여권론적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Avis, 1986).

#### 1) 여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의 고립

가족치료에 대한 여권론적 치료가들의 비판은 이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 발전된 여성에 관한 현대의 이론과 연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었다(Avis, 1985 ; Goldner, 1985). 그 이유로는 남성지도자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던 점, 여권론자들이 가족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점, 가족치료자들이 비성차별적(nonsexist)이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nonblaming) 방식으로 치료를 해왔던 점 등이 거론될 수 있으나(James & McIntyre, 1983), 무엇보다도 체계이론을 가장 주된 개념들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2) 가족역기능에 관한 체계이론의 부적절한 적용  
체계이론은 가족문제에 개입할 때 어떤 개인을 특별히 탓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출발했지만, 그 이론적 시각을 잘못 적용하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권론자들은 문제제기를 한다. James와 McIntyre(1983)는 가족체계이론이 추상적이고 중립적인 사이버네틱스언어를 사용하고, 가족에 특정한 체계 규칙을 적용하면서 가족을 역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맥락에서 분리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체계적 가족치료이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순환성(circularity), 중립성(neutrality), 상보성(complementarity) 등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Bograd, 1984 ; Goldner, 1985 ; Taggaret, 1985). 순환성 개념은 변화가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는 연속선 안에서 행위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체계의 유지나 문제 유발에 동등하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아내가 타나 강간, 근친상간같은 문제에 순환성 개념을 적

용시키게 되면 여성 또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되고, 남성의 책임은 교묘히 제거될 수가 있다. 비슷하게 체계의 모든 부분이 문제/역기능의 형성과 유지에 똑같이 기여한다고 보는 중립성 개념은 가족성원들간에 다르게 부여된 권력이나 영향력의 차이를 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성역할이나 상보성의 개념은 '분리되었지만, 똑같이 평등하다'는 듣기 좋고 민주적인 관념에 호소함으로써 권력과 지배의 측면을 흐려버린다고 지적된다.

#### 3) 기본범주로서의 성(gender)의 고려를 하지 못하는 점

가족치료에서는 성을 근본적인 범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Goldner, 1985), 성에 따른 권력관계의 분석에 너무 둔감해서 가부장적 견해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몇몇 여권론적 가족치료자들은 사회, 국가 혹은 개인적 정체감과 같은 측면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경험이 성의 영향과 관련된다고 보았다(Goldner, 1985 ; Taggaret, 1985).

#### 4) 어머니를 비난하는 경향

여권론적 치료자들은 어머니에게 가족영역의 많은 문제를 관리하도록 맡겨 놓고 동시에 가족문제를 일으키는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가족치료안에서의 교묘한 편견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Bograd, 1984 ; Spiegel, 1991). 체계적 가족치료에서는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취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동양육은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아이들의 문제가 주로 그들의 어머니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권론적 치료자들의 비판을 받는다. 또한 Lidz와 그 동료들이 사용한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어머니(schizophrenogenic mother)'라는 용어는 가족치료분야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보는 뿌리깊은 전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같은 경향은 Caplan과 Hall·McCorquodale(1985)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그들은 그 당시 발표된 125개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72개의 정신병리가 어머니 탓으



로 돌려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 5) 전통적인 역할과 가치의 강화

가족치료에서는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역할모델을 이상적인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여성이 지배하는 사적/가족영역과 남성이 지배하는 공적/직업영역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받는다(Avis, 1985; Hare-Mustin, 1978). 여권론자들은 가족치료자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 고정관념화된 기대를 하고, 전통적 관계모델을 이상적인 것으로 설정하며, 여성과 가족역기능의 발달 모두에 미치는 사회화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가족치료자들은 종종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반응하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고정관념화된 성역할과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Avis, 1985; Hare-Mustin, 1978).

### 6) 가족치료의 정치적 측면 무시

여권론자들은 가족치료자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치료가 갖는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부인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많은 치료자들은 중립적인 자세가 가족가치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서, 그들이 만나는 가족내에서의 성(gender)과 관계되는 문제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권론자들은 치료관계에 이미 권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치료자는 가치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치료적 중립성'이란 불가능하고 위험한 신화라고 반박한다(Avis, 1985). 이러한 신화를 고수하는 치료자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입장을 채택하게 되고, 또 종종 여성에게 억압적인 전통적 가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 7) 남성중심의 건강개념 강조

가족치료이론을 살펴보면, 자율성이나 분리, 개별화, 적절한 경계 등이 심리적 건강의 기준으로 제시되며, 타인과 정서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을 강조한다. 즉, Bowen의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개념이라든가 Minuchin의 지나치지 않는 속박 개념 등이 정신적 건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성에 보다 가까운 개념들이다. 이같이 기존의 가족치료에서는 남성성을 대변해주는 속성들이 건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여성성을 대변해주는 미분화의 척도는 병리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 2. 주요 가족치료이론에 대한 여권론적 비판

기존의 가족치료이론에 대한 여권론자들의 비판은 가족정신역동모델, Bowen의 모델, 기능주의 가족치료모델, 구조적 가족치료모델, 의사소통 가족치료모델, 전략적 가족치료모델, 행동적 가족치료 모델 등 가족치료이론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지만(김성천, 1992), 주로 가족치료를 지탱해 온 주요한 이론적 토대인 두 이론, 즉 정신분석이론과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수렴된다.

Hare-Mustin(1987, 1988)은 가족치료모델이 광범위한 성편견을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성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정신분석에서의 편견을  $\alpha$ 편견이라고 하고, 양성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체계이론에서의 편견을  $\beta$ 편견이라고 하였다.<sup>6)</sup>

$\alpha$ 편견은 여성을 자연, 감성으로, 남성을 문명이나 기술, 이성으로 보는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이분법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정신분석이론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 Freud이론은 남성성을 인간표준으로 취했으며, 여성성은 그 표준으로부터의 이탈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양성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정신분석학은 여성의 경험이 남성의 경험과 크게 다르고, 또 여성을 부차적이고 열등하게 보는 시각을 취하였다. 이러한 성(性)을 이분적으로 보는 사고는 Parsons의 성역할이론에 반영되어 남성은 수단적이고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공적 세계인 직장, 여성은 표현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

6) 이  $\alpha$ - $\beta$  도식은 가설검증에서의 도식과 유사하다. 가설검증에서  $\alpha$ 편견 혹은 I종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beta$ 편견 혹은 II종 오류는 존재하는 유의한 차이를 간과하는 것을 말한다.

에 배치시키는 것을 기능적이라고 보는 견해를 받게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이고 고정화된 성역할 개념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며, 가족치료 안에서 성역할에 대한 관념을 형성시켜 왔다고 여권론적 치료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β편견은 차이를 무시하는 것에서 오는 왜곡된 견해로, 기존의 학계에서 여성이 갖는 고유한 경험체계나 남성과는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중심의 관찰에 기인하여 인간행동을 설명하고 일반화시키는 태도에서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편견은 가족치료 이론에서의 체계적 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체계적 가족치료이론에서도 Haley의 전략적 모델이나 Minuchin의 구조적 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모델들에서는 성(gender)을 무시하고, 연령·세대를 가족내 중심원리로서 상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같은 세대에 속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내에서 반드시 비슷한 권력과 자원을 지니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Hare-Mustin, 1988).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가족치료에 대한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비판적 관점을 <그림 1>에서 비교·정리해보았다.

## V.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기법과 여권론적 가족치료자의 훈련

다음에서는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지니는 성격과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기법

여권론적 가족치료는 가족치료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이론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성(性)을 가족조직의 원리로 간주하는(Hare-Mustin, 1987) 시각과 임상적 제안을 말하며, 치료관계에서 여권론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치료가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인식하고 시도하는 것이다(Avis, 1986).

다른 연구자나 치료자의 관점을 결합시켜 여권론적 가족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김성천, 1992; Avis, 1986; Hare-Mustin, 1978).

#### (1) 개념적 기술

1) 여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이는 여성에 대한 치료자의 긍정적 태도와 이 태도를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들의 관심사, 지각,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여성을 가족문제나 변화에 일차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으로 타하지 않는 것 등이 특히 중요하다.

2) 사회분석 : 사회분석이란 "여성 행동에 내적·외적으로 가해지는 성(性)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제약의 평가"로 정의된다. 이는 전통적 사회화와 성에 따른 노동의 분화가 어떻게 남녀간의 권력차이를 지속시키는지를 인식하며, 가족 내부와 외부에서, 여성의 종속적 위치와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시키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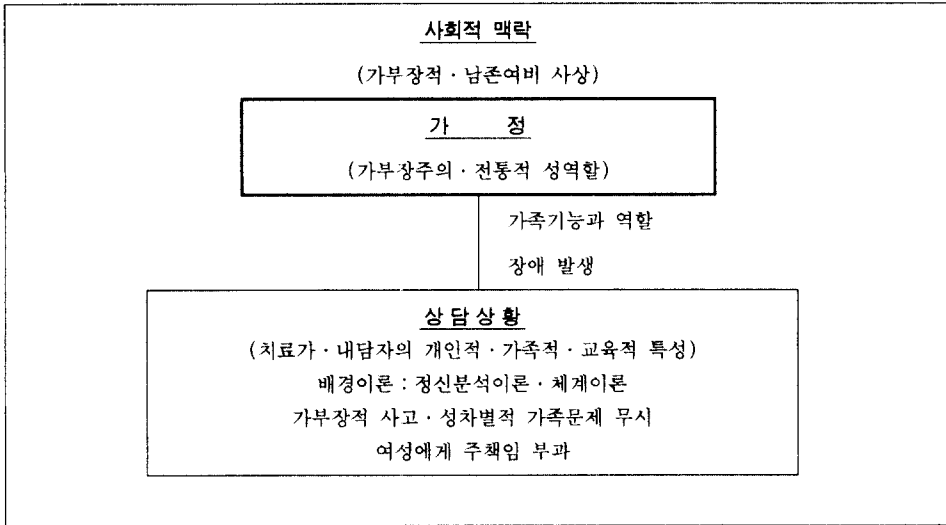
#### (2) 치료개입기술

1) 여성을 강화시키기 : 이 기술은 여성이 가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맡으면서도 권력은 별로 없는 역설적인 위치에 대항하여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향미치도록 사기를 충분히 강력하게 느끼게 돕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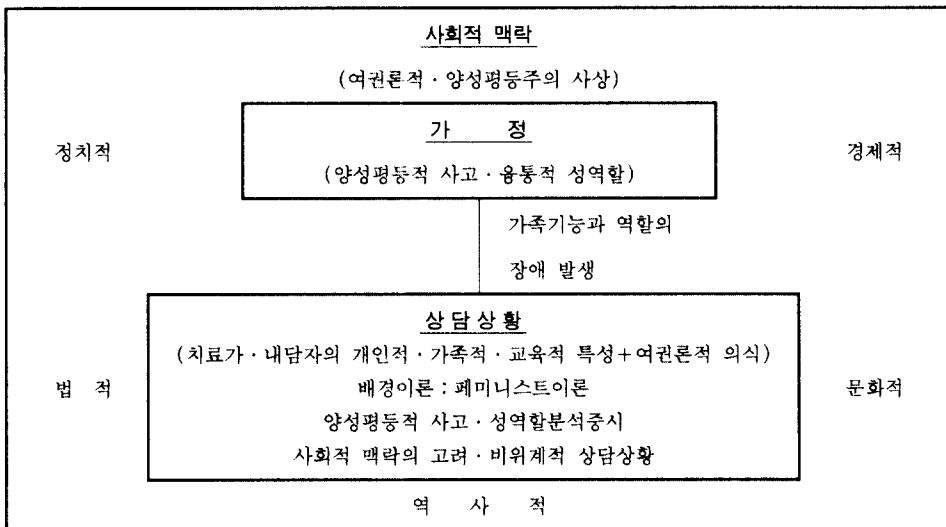
2) 성(gender)문제를 드러내기 : 이 개입은 여권론적 치료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性)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권력과 성(性)의 차원을 포함해서 문제를 규정하기, 치료에 성분제를 도입하고 논의하기, 고정관념화된 행동·태도·기대에 도전하기, 이혼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다른 영향을 논의하기, 전통적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가족을 교육시키기, 가족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차이를 분명히 밝히기 등이다.

3) 가족내에서 남성과 여성간 권력균형 맞추기 : 여성이 대개는 남성보다 직접적 권력의 원천(금전,

〈기존의 가족치료〉



〈여권론적 가족치료〉



—— 치료에서 중시하는 부분

〈그림 1〉 기존의 가족치료와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비교<sup>7)</sup>

7) 이 도식은 김성천(1992)과 Avis(1986), Golder(1985), Hare-Mustin(1978), Taggaret(1985)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다.

지위, 교육, 자원에 대한 통제 등)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양육이라든가 집안 살림살이같은 가치가 평가되지 않고 지불되지 않는 노동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맡음으로써 그들의 권력이 감소된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남성과 여성 내담자들 사이에 권력불균형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 (3) 기술훈련

이 기법에는 여성이 화가날 때 자기를 주장하고 그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출하도록 가르치기, 여성들이 새로운 성역할 행동을 실행하도록 돕기 위해 역할극 이용하기, 남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도록 가르치기, 남성에게 자기가족의 정서적·양육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반응하도록 가르치기 등이 포함된다.

### (4) 자아분석

여권론적 접근에서 치료자들은 전통적인 심리치료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활용한다. 이 기법에는 자기노출의 선택적 사용, 수단적·정서적 행동의 통합이나 개인적 권력을 연습하는 모델의 역할,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과 공동노력을 기울이기, 가족에 대해 전문가나 권위자로서의 위치를 피하기 등이 포함된다.

## 2. 여권론적 가족치료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교육과 훈련을 통한 양성은 여권론적 가족치료사를 배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으로 특히 최근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영역이다(Leslie & Clossick, 1992; MacDermid et al., 1992). Avis(1986)는 수년간 여권론적 사고를 그들의 치료와 훈련에 통합시킨 경륜있는 가족치료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여권론적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훈련과 슈퍼비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여권론적 가족치료의 교육과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여권론에 대한 강의내용

훈련받는 사람의 성(gender)에 대한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족치료와 관계 강좌에 성문제와 여권이론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의 강좌에 여권론의 내용을 통합시키는 것에 부가해서, 성(性)에 대한 쟁점이나 여성학에 대해 특별히 초점을 맞춘 개별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장려된다.

### (2) 성(gender)문제를 직접적으로 강조하기

여권론적 접근의 훈련에서 교육자들과 슈퍼바이저들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성(性)에 관한 쟁점을 강조한다. 또한 성과 연관된 이론과 연구자료를 수업에 통합하고, 전통이론의 성에 대한 편견과 한계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받는 사람의 성차별주의적 가정과 신념에 직접적으로 도전한다.

### (3) 관련서적 읽기

여권론적 문제 전반과 특히 가족치료가 여권론적 시각을 통합하는 논문, 연구보고서, 수기나 책 등을 읽도록 요구한다. 여성심리와 발달, 여성과 정신건강, 모성, 가족, 성(gender)의 관계에 대한 여권론적 분석에 대한 기본 서적 뿐만 아니라 여권론적 가족치료자의 저서들이 추천된다.

### (4) 성(gender)문제를 밝히기

훈련시키는 사람이나 슈퍼바이저가 권력과 성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치료나 훈련에서 그같은 편견이 일어날 때마다 여성에게 책임 전가, 성차별적 언어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전통적 치료에서 여성을 잘못 다루었음을 지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 (5) 치료자 자신의 가치와 사회화 검토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 성역할사회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가족 내에서의 성에 대한 규칙과 기대를 분석시키는 일은 여권론적 시각을 가지도록 훈련시키는 중요한 측면이다. 자신의 성에 대

한 가치나 태어난 가족에서의 성에 대한 가치를 주제로 해서 글을 쓰게 하거나, 자신의 가계분석도를 구성하고 검토하게 하는 요구와 같은 수많은 특징기법은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 (6) 비디오 분석과 역할극

비디오분석은 훈련받는 사람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특별히 유용한 도구이다. 한 방법은 치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치료장면을 담은 테이프를 보게 하는 것이다. 역할극이나 치료의 비디오테이프는 여권론자의 가설과 개입을 개발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치료가정이나 치료접근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7) 모델링

훈련에 대한 여권론적 접근에서, 슈퍼바이저/훈련자는 여권론적 접근의 다양한 기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면서도 양육적인 역할의 통합에 대한 모델이 되려 한다. 학습과정에서의 모델링의 중요성 때문에, 남성과 여성 훈련자나 슈퍼바이저를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 VI. 한국에서의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실행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여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문제 연구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여성상담과 여성심리에 대한 관심도 표현되고 있기는 하나 여권론적 심리치료나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 그러나 가족치료 전반에 걸쳐 관심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또 가족치료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여권론적 가족치료는 분명히 앞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권론적 가족치료와 관계되는 주제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대개 여성심리학이나 양성성,

성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많고, 여성상담이나 여권론적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도 소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상담에 관한 연구는 여성심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여성상담과 연결시킨 이혜성(1985), 한국여성의 삶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의 심리문제에 대한 한국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문은희(1985), 여성상담의 기초개념들을 살펴본 이영희(1985)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여권론적 치료에 대한 연구는 김영희(1987)에 의해서 이론적 고찰연구로 시도된 바 있다.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김성천(1992, 1993)은 가족치료 분야에서의 페미니스트 접근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중 가장 심도있고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 가족내 성차별적인 문제 해결에 여권론적 치료가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재 가족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클라이언트, 그 가족에게 타진해보는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치료자들 사이에 여권론적 심리치료에 대한 기대가 있고, 수용가능성도 비교적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가족치료자의 페미니즘 의식, 가족문제에 대한 성차별적 관점, 가족문제에 대한 성차별적 접근방법, 페미니스트 가족치료기법의 과거 사용정도와 페미니스트 가족치료 기법의 수용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은 페미니스트 가족치료기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가족치료가보다 더 높았으며, 가족치료가들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페미니즘 의식, 성차별에 대한 시각을 갖고 가족문제를 보는 관점이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은주(1993)가 남편의 혼외관계 문제의 상담에 여권론적 가족치료 관점을 적용시키고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권론적 가족치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전망한다.

## Ⅶ. 결 론

가족치료안에서의 여권론적 접근을 살펴보고 했던 본 연구는,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여권운동의 발달 이후 심리학 분야에서 발달한 여성심리학과 여권론적 심리치료의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고, 가족치료의 주요 이론적 토대인 정신분석학과 체계이론에 대한 여권론자의 비판이 가열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권론적 가족치료는 어떤 새로운 가족치료이론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가족치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가족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이미 사용되어 온 방법들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대안적인 하나의 관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치료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성(gender)이라는 변수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가족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이 성(性)과 관련된 권력의 문제가 정치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더 잘 파악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점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여권론적 가족치료를 위한 개념적·임상적 기법들을 발굴·창조·발전시키며, 여권론적 가족치료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방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한국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우선 첫째로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문화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의뢰하는 내담자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치료를 실시하는 전문가들 안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전

통적으로 심리치료자들의 보수적인 측면이 종종 지적되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측면이다. 기존의 가족치료방법에 여권론적 시각을 도입함에 있어 예상되는 거부반응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접목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권론적 가족치료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의식과 교육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김성천, 1992).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일반교육과 더불어 치료자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상황에 임하게 되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여권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아울러 필요하리라고 본다.<sup>8)</sup>

셋째, 구체적으로 여권론적 가족치료를 소개하고 방법론, 치료개입결과 등을 탐구하는 논문과 연구의 발표, 세미나를 통한 이론적 작업과 함께 여권론적 가족가족치료의 실천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의집단의 형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sup>9)</sup>

본 논문은 가족치료안에서의 여권론적 접근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본 기초적 연구이다. 아직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므로, 여권론적 가족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결과연구보다는 주로 기존의 가족치료 이론에 대한 여권론자들의 비판적 시각과 기법, 교육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여성이 가족내에서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성폭력이나 가족폭력, 근친상간 등의 문제가 사회에 노출되고 있고 또 가족치료에 의뢰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히 여권론적 시각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인식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포

8) 우리나라에서는 김성천(1992)이 여권주의 의식과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여부에 대한 척도를 개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Smith와 동료들(1987)이 여권주의 척도(Feminism Scale)를, Black과 Piercy(1991)는 여권론적 가족치료 척도(Feminist Family Therapy Scale)를 개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적절한 여권주의 척도와 여권론적 가족치료 척도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9) 이와 관련하여 의식개발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관한 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박정은(1989)과 여성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정숙(1990)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합한 가족내외의 실제 임상적 사례에 여권론적 시각을 적용한 경험적·질적 연구들이 축적될 것을 기대해 본다.

여성의 권리의식에 대한 자각과 실천운동의 열기가 점차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문분야에서 여권론적 시각이 던지는 도전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이러한 도전은 가족치료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시각을 도입해서 가족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이론적·임상적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정숙(1990), 여성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 여성연구 8(2), 207-234.
- 2) 김성천(1992), 한국에서의 성차별적 가족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 가족치료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3) 김성천(1993), 가족치료이론에 대한 양성 평등주의자의 비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창간호 : 89-104.
- 4) 김영희(1987), Feminist Therapy의 이론적 고찰, 인간이해 7:13-33, 서강대 학생생활상담소.
- 5) 김홍주(1993), 한국가족문제의 특징, 한국사회사 연구회논문집 제39집,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 지성사.
- 6) 문은희(1985), 여성개발과 여성상담— 여성문제의 한국적 접근모색 —, 여성상담의 실제, 27-51, 서울: 여성개발원.
- 7) 박정은(1989), 여성문제에 대한 태도 개선 방안, 여성연구 7(3), 88-135.
- 8) 여성의 전화(1991), 10월자료, 여성의 전화.
- 9) 이광규(198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10) 이기숙(1993), 사회변화와 가족, 한국가족학연구회 회편 가족학, 서울: 하우.
- 11) 이영희(1985), 여성상담의 기초개념, 여성상담의 실제, 71-93. 서울: 여성개발원.
- 12) 이은주(1993), 남편의 혼외관계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와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서울: 한울.
- 13) 이혜성(1985), 여성상담과 여성심리, 여성상담의 실제, 55-69, 서울: 여성개발원.
- 14) 정민자·옥선화(1993),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15) 조연규·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역학조사, 신경정신의학 29(1).
- 16) 최홍기(1991), 유교와 가족, 가족학논집 제3집, 207- 227.
- 17) 한국여성연구소(1989), 새로운 여성학교육의 모색, 여성학 영역별 연구, 387-414,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1975), Report of the force on sex bias and sex-role stereotyping in psychotherapeutic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30 : 1169-1175.
- 19) Andersen, M. L.(1983), *Thinking about Women : Sociological and Feminist Perspectives*.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20) Avis, J. M.(1985), The politics of functional family therapy : Feminist critiqu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2) : 127-138.
- 21) Avis, J. M.(1986), Feminist issues in family therapy. In F. P. Piercy & D. H. Sprenkle(Eds.). *Family Therapy Sourcebook*.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22) Black, L. & Piercy, F. P.(1991), A feminist family therapy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7(2) : 111-120.
- 23) Bograd, M.(1984), Family systems approaches to wife battering : A feminist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4) : 558-568.
- 24) Burr, W. R., Day, R. D., & Bahr, K. S.(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 Brooks/Cole Publishing Co.
- 25) Caplan, P. J. & Hall-McCorquodale, I.(1985), Mother-blaming in major clinical journal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3) : 345-353.

- 26) Donovan, J. (1985), *Feminist Theory: The Intellectual Traditions of American Feminism*. New York : Frederick Ungaro Co.
- 27) Enns, C. Z.(1993), Twenty years of feminist counseling and 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1(1) : 3-87.
- 28) Ferree, M. M.(1990), Beyond separate spheres : Feminism and family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 866-884.
- 29)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 Havard Univ. Press.
- 30) Goldner, V.(1985), Feminism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24:31-47.
- 31) Goldner, V.(1988), Generation and gender : Normative and covert hierarchies. *Family Process* 27:17-31.
- 32) Hare-Mustin, R. T.(1978), A feminist approach to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17:181-194.
- 33) Hare-Mustin, R. T.(1987), The problem of gender in family therapy theory. *Family Process* 26:15-27.
- 34) Hare-Mustin, R. T. & Marecek, J.(1988), The meaning of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43(6):455-464.
- 35) James, K. & McInyre, D.(1983), The reproduction of families : The social role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2): 119-129.
- 36) Leslie, L. A. & Clossick, M. L.(1992), Changing set : Teaching family therap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41(3) : 256-263.
- 37) MacDermid, S. M., Jurich, J. A., Myers-Walls, J. A., & Pelo, A.(1992), Feminist teaching : Effective education. *Family Relations* 41:31-38.
- 38) Smith, E. R., Ferre, M. M., & Miller, F. D. (1987), Attitudes toward feminism scale. In N. Fredman & R. Sherman (Eds.). *Handbook of Measurements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N. Y. : Brunner/Mazel, Publishers.
- 39) Spiegel, D., 권오주 외 4인 공역(1991), 어머니 일 수행, 아버지일 수행 그리고 정신질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40) Taggaret, M.(1985). The feminist critique i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 Questions of context in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2):113-126.